



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
Busan Jinhae Free Economic Zone Authority

보도자료

보도일자	2026.06.05.(금)	배포일자	2026.06.05.(금)
담당과장	투자유치부 투자유치2과장 문성아(051-979-5260)	담당자	투자유치2과 주무관 김장희(051-979-5264)

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, 중국 장쑤성 · 상하이권 투자유치 네트워크 확대

- 중국 장쑤성 치둥시 방문... 투자유치·산업교류 협력 기반 확대
- 치둥경제개발구관리위원회·북경청년국제문화예술협회와 교류·협력 MOU 체결
- 항만물류·첨단제조·공급망 분야 협력 논의 및 한중 교류 네트워크 강화

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(청장 박성호, 이하 경자청)은 중국 장쑤성 치둥시를 방문해 치둥경제개발구관리위원회 및 북경청년국제문화예술협회와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고, 경제·무역·물류·첨단제조·투자유치 분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.

경자청과 치둥경제개발구관리위원회 간 MOU는 치둥경제개발구의 산업·물류 기반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항만·첨단산업 입지 경쟁력을 연결하는 협력 채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.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지역 기업 간 투자 협력과 상호 진출 촉진, 물류·첨단제조 분야 산업 정보교류, 투자설명회·비즈니스 상담회 등 교류행사 협력, 항만·물류·공급망 관련 산업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.

치둥경제개발구는 중국 장쑤성 치둥시에 위치한 성급 개발구로, 상하이와 가까운 입지와 장강 입구 북측의 산업·물류 접근성을 갖춘 지역이다. 1992년 설립 이후 총 50km² 규모의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신에너지, 바이오 의약, 범반도체 분야를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, 치둥항과 뤼쓰항

등 항만 인프라를 바탕으로 수출입 물류와 공급망 운영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. 특히 해양중공업산업단지는 선박·해양장비 등 해양중공업 분야의 산업기반을 갖춘 지역으로,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부산항 신항·진해신항 중심 항만·물류 인프라 및 조선기자재·첨단제조 분야와 협력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평가된다.

경자청과 북경청년국제문화예술협회 간 MOU는 치둥한중양국무역문화산업플랫폼을 포함한 한중 교류 네트워크와 연계해 산업·문화·기술 분야의 협력 기반을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.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·기관 간 교류, 산업 정보교류, 투자설명회·포럼 등 교류행사 협력, 경제·물류·첨단제조·투자유치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.

MOU 체결식은 치둥빈관에서 열렸으며,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, 문성아 투자유치2과장, 귀지엔 치둥시위 상임위원 겸 치둥경제개발구 당공위 서기, 왕평화 치둥경제개발구 주임, 송페이츠 치둥경제개발구 부주임, 황웨이 치둥경제개발구 투자촉진국 국장, 왕지에 북경청년국제문화예술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.

박성호 청장은 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한 항만·물류 경쟁력과 첨단산업 입지 여건을 함께 갖춘 지역”이라며 “이번 MOU 체결은 치둥경제개발구와의 산업협력 가능성을 구체화하고, 중국 장쑤성·상하이권과의 투자유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2과 김장희 주무관(051-979-526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